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65호 【부제 제 24578호】 주제 103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흙 7 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흙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 제 597련함부대 부대장 해군소장 진철수동지와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작전적구상과 천리해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직된 군부대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속에 무적의 전투대로로 강화발전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부대관하 대대들을 찾으시였던 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부대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형군업적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혼련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싸움군이 아닌 지휘관이 싸움군들을 키울수 없으며 몸에서 화약내가 나지 않는 지휘관이 결전의 그날 포연탄우속으로 대오를 이끌고 돌격해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싸움준비완성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분과 초를 아껴가며 최대의 마력을 내어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후방사업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적들의 변화되는 침략전쟁기도와 전투행동방법, 무장장비의 특성에 맞게 주제적해상전법을 더욱 완성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아군 동서함대들의 해상공격작전능력을 비상히 강

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함부대의 전투임무수행에서 이 군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에서 어디에 모를 박아야 하며 부대의 작전에 유리한 전투환경을 조성하자면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놓여있는 작전전투계획들은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들

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싸움을 번개같이 불이 번쩍 나게 치를수 있도록 싸움준비완성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을 다병종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래에 대하여도 자세히 료해하시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올해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하자

정신력발동의 묘수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황해북도의 농촌에서 전례 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6월 2일까지 기쁜면적의 모내기가 지난해에 비하여 열흘이나 앞당겨 끝났으며 꽃밭처럼 알뜰한 강병이발들에서는 네벌 김매기가 시작되었다. 땅도 그 땅이고 사람이요 그 사람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이런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는가.

올은 묘수를 가지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나간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기로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근중과 일도 같이 걸린 문제도 풀이주면서 정을 주어야 심장의 문을 열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그 숭고한 뜻을 실현에 옮겨 구현해나가는것을 도당책임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로 돌리시였다.

정신력발동의 묘수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바로 여기에 올해 농사에서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열쇠가 있다.

도당위원회일꾼들은 분개연선에 위치한 장풍군인의 협동농장들에 파견하면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한 도당책임일꾼은 자기가 먼저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국화협동농장 제3작업반

으로 내려갔다. 2분조장의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책임일꾼은 분조원들의 생활과 분조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정한 정을 느낀 녀성분조장은 분조농사에서 걸린 문제는 물론 분조원들을 단합시키는데서 애를 먹던 사실까지 다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분조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책임일꾼은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올해의 첫 대회로 분조장들의 대회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귀에 속속 들어가게 해설해주기도 하고 성실한 땅으로 쟁을 많이 생산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는 대회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분조장들의 대회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분조장들의 대회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장풍군인의 농장 분조들에 나간 도당일꾼들, 도당기관 일꾼들 모두가 농업근로자들과 한가마뱀을 먹고 일도 함께 하면서 정을 주며 그들을 불려오셨다.

그후에도 일꾼들 심혈을 기울여 분조장들의 모내기전투장에 달려나간 도당일꾼들은 이른 새벽 남면저포장을 타고왔어 농사일을 간지켜 하는가 하면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친혈육의 정으로 풀어주어 농업근로자들을 감동시켰다.

무릎을 마주해야 정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정을 주는 일꾼들

의 정치사업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농사군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업근로자들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정을 주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킨 도당위원회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그 열의를 총폭발시켰다.

도당위원회는 황주군 구포리에서 진행한 선진선동력평가수단들의 출몰모임으로 모내기전투를 위한 사상공세작전의 막을 열었다. 시, 군별선동력평가수단들의 준비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황선동방법, 직관선동방법 등 모내기전투에 관한 실천적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이날의 모임을 통하여 도안의 사상일꾼들은 드세한 집중포화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추동할 결심을 새롭게 다지였다.

집중경제선동을 위한 면민일조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도당위원회의 해당 부서일꾼들과 도안의 예술단체들 등 비롯한 여러 단위의 당, 행정적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경제선동작업이 발표되었고 그날은 실무적인 대책들이 토로되었다.

경제선동대원들의 선동활동은 도안의 모내기전투를 들끓게 하였다. 25명의 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경제선동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리원시 미꾸라지농장을 비롯하여 신계, 목산, 장풍군 등 도안의 시, 군농장들을 돌면서 강연선동활동을 전진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실이나 회관이나 포전에서 진행하는 참신한 강연선동활동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달시켰다. 5월 6일부터 도예술단, 도예술선진대 등 여러 예술단체의 배우, 교원, 학생들로 구성된 여러 편대의 경제선동대가 도안의 농장별들을 돌면서 참신한 예술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도미술창작사 부서의 미술부문의 창작가들은 선동작업에 참가한 가운데 도출판물관리국에서는 참신한 도사선동으로 도작가동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작과 광중으로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 주었다.

집중경제선동대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도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것은 경제선동대원들이 박력있는 선동활동과 함께 헌신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는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선동대원들은 모내기전투 전 기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힘있는 선동활동과 성의있는 지원사업으로 그들의 정열을 발달시켰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농촌선동원들이 1만 5천여대의 모

방송기체들을 총동원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벌여도록 하는 한편 속도, 사투리의경쟁도로, 구호, 포어 등 직관선동수단들을 최대한 포진에 집중시켜 선동의 실효를 높여도록 하였다. 또한 시, 군기동에출신선동대, 로병기동에출신선동대, 녀병기동에출신선동대, 도서해설선진대 등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정을 주는 당사업, 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사상전의 원바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의 선진선동력평가를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창조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분조원들과 줄곧 모내기를 하였다. 하여 분조가 그날 모내기전투에서 농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내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꾼들이 이선 작적을 대농발동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가기로 계기와 조인을 주동적으로 조성하였다. 모내기가 시작된날 250여명의 군당기관 일꾼들이 여러가지 정치사업자료들과 선동수단들, 농장원들에게 안겨줄 지원물자들이 들어있는 배낭을 한달한시에 금성협동농장 작업반들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돌아다니며, 군당위원회일꾼들에게 모내기에 대한 농장에 집중적으로 파견한때는 목적이 있었다.

첫째로는 로력사정이 긴장한 모내기시기에 한계 농장적 집중적으로 도우주기 모내기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내게 하자는데 있었고 둘째로는 이 파장을 통하여 일꾼들에게 올바른 관중관을 세워주며 셋째로는 대중의 정신력에 더 큰 불을 달자라는 것이었다. 이날 군당일꾼들은 제 2작업반의 모내기전투장으로 나갔다. 드넓은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어울려 나뉘어 손쉬로 4시간, 이를 때는 6시간동안 허리가 늘었다. 벼모가 가득히 담긴 콤바인 지게를 타고 신발이 닳도록 포전을 부지런히 오고가는 일꾼들의 일본색은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농장원들은 두류, 새물 일하였다. 3일동안에 해야 할 면적의 모내기를 하루동안에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면 집중협동농장 제3작업반에 나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꾼들과 제7작업반, 제8

작업반에 나간 군민위원회일꾼들도 모내기전투장에서 결사적으로 일하였다. 농장원들보다 한발 먼저 포전에 나옴과 점심식사도 포전에서 하면서 날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군당기관 일꾼들의 일본색에서 농장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이 소식은 한일대입 건너 온 군에 퍼졌다.

군안의 협동농장지구에 살고 있는 로동자, 사무원부양가족들이 농사일을 보다 적극 도와나섰다. 수천명의 가두민민원들이 뒤뚱뒤뚱 작업반, 분조들을 추켜세우며 농장비를 총출력하였다. 말그대로 밤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었다. 일꾼들이 이선작적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대중과 한평일이 되어 혁명적관공편을 구현해나갈수 있는 대농의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대중의 힘을 받았으니 두드러진것이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분식케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모내기를 보거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영농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려면 눈속이나 발머리에서 땀도는 사람보다 포전에서 실지담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로력이 가장 긴장한 모내기전투때에 만약 일꾼들이 조금 일꾼들을 불러내어 작업실적을 따지고 회의실에서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일하였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있었겠는가.

일꾼들은 땅을 흘려도 남보다 더 흘리고 땀을 저도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한다. 그래야 단위사업에서 비약이 일어날수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함경북도송배전부

일마침 함경북도송배전부에서 농촌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던 때의 일이다.

준비정황을 알아본인 조급당서서 기철호동무는 마른땀은 영농물자창목을 놓고 생각 깊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이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 비해올 때 량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 농업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력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의도를 다시금 새겨수록 만족할 수 없었다. 하여 그는 해당 농장의 영농사업에서 결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어랑군 이영협동농장 제4작업반과 제6작업반으로 나갔다.

조급당일꾼이 현지에서 나가본것은 잘한 일이었다. 양수설비들이 적지 않게 고장나 애를 먹고있었다.

조급당일꾼은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느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덜 미친 구석이 있었다는것을 향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막상 그 설비들까지 마음을

조급당위원회에서

쓰면서 수리해줄 타산을 해보니 많은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였다. 하기에 조급당일꾼이 그 문제를 상정시켰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였다. 지금 준비한 영농물자도 많은데 그것까지 꼭 해야 하겠는가 하는 눈치였다.

그러는 일꾼들에게 조급당일꾼은 말하였다.

《모든 력량을 농촌에 총집중, 총동원하려는 당의 요구는 누구나 하던것에 신실정도로 농장을 도우라는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크게 봅시다.》

조급당일꾼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일꾼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그날 일꾼들은 농촌지원사업에서 조급당일꾼은 사상판결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느꼈다.

그러하여 지배인 문제뿐, 부지배인 김금성동무들을 비롯한 일꾼들이 말을 걸어보았고 나선 가운데 얼마후 이영송배전부에서는 많은 영농물자와 함께 특색있는 지원포를 더 파주게 되었다.

농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진군길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

공훈 국가합창단 희천에서 대절찬속에 공연

【희천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새 세기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이 떠오른 희천땅에 최후 승리의 진군가가 힘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우렁찬 혁명군가의 피성으로 자강도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불려일어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순회 공연이 갈수록 이어 희천에서 막을 올렸다.

13일 희천시의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잊을 수 없는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사령부 나팔수들의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

과 노래편곡 《태양을 우리러 부르는 노래》, 남성합창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원수님을 당할자 없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여성 4중창 《우리 원수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역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공업의 무궁

무진한 잠재력을 다져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신진지명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CNC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으로 조국변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 의로고를 되새겨주는 남성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울려 퍼지며 장내를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자강도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새겨진 시대의 명곡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을 굳게 믿고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진군길을 개척해온 위대한 장군님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승리의 추억과 긍지,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무대에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 일세》,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축복받은 나의 삶》,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등이 펼쳐져 공연분위기는 더한층 고조되었다.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고무 추동하는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고결한 총성으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또다시 울려 퍼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희천로동계급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희천에서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계속된다.

최고사령부직속 예술부대의 혁명군악에 발걸음을 맞추어 CNC기계바다를 펼쳐놓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한것처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 대비약적혁신으로 최첨단들과의 1번수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갈 최첨단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를 천백배로 승화시켜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희천에서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계속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민주주의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황성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조명호 교도 조선고급학교 교장, 장달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정성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우리 나라 의무상과 모잠비끄의 무 및 협조상 회담

모잠비끄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모잠비끄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이 11일 무 및 협조성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모잠비끄 도착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1일 모잠비끄 공화국에 도착하였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5일 9시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보천보태권술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 남자경기 4. 25일과 리명수팀, 평양팀과 기관차팀 사이에 진행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리뜨바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리뜨바에서 진행된 철도협조기구 제42차 상회의에 참가하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주체번영의 길에 바치는 삶이 값있다

농장원들은 그를 애국가라고 부른다

남포시인민보안국 아래단위 김영록동무

몇해전 봄 밤이 떠들썩할 무렵 김영록동무가 환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이걸 좀 봐주시시오.》 그는 들고는 도넛말이를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당시 농장의 기계화작업반에서는 트랙터기판의 피스톤과 가라지가 빨리 닳는 것이 하나의 난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영록동무가 그것을 풀겠다고 나섰다.

《당신이야 기술감독사업이나 착실히 하면 될텐데 그런 데까지 마음쓰다니요.》 안해가 걱정스럽게 말하였으나 김영록동무는 《이것은 내 일이지.》라고 하며 혼연히 웃음지었다.

그는 트랙터운전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방도를 모색하였다.

김영록동무는 기계공장의 여러 기술자들과 오랜 농촌기계화조성들을 만나 합의를 거듭하면서 공기청정기도 면을 끝내내 완성하였다.

봄이 가 알싸하게 풍기던 일출수 없는 밤 전남호동무의 책상위에 그가 펼쳐놓은 것은 바로 그 공기청정기 모델이었다. 얼마 안되어 남포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트랙터들에 공기청정기가 도입되어 트랙터의 기관수명과 보수주기가 종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긴절한 문제를 풀었다고 농장원들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으나 김영록동무는 오히려 속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트랙터들을 만가동시키는데 자기의 본분이라고 소박하게 대답하였다.

김영록동무였다.

그리고도 차고 다 완성되자 그는 트랙터들에 비해 한방울 새어 들지 않았다고 자랑처럼 기뻐하며 운전수들을 축하해주었다.

이처럼 농촌기계화사업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강그리 바쳐온 김영록동무였지만 그가 세운 2012년의 결의 목표는 너무도 야심찬 것이어서 전남호동무는 그를 찾아와서도 김영록동무로 향하였다.

대대협동농장의 기계화작업반에 이르니 그곳 작업반장이 반겨맞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영록동무가 자기네 농장의 튼튼기계상태를 다 료해하고 이웃농장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트랙터들의 적체해결이 낫았거든요.》

기술감독사업을 하면서 부족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내놓고 싶은 것이 없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그의 습벽이었다.

담당한 농장들의 작업반들이 트랙터들을 보관하는 차고를 앞뒤로 만들어놓을 것을 발기하고 그 건설을 앞장에서 이끈 사람도 다름아닌

무는 심증을 더 놓았다.

《농장원들이 아버지장군님의 명전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전 정말 피스러웠습니다. 농사가 잘 안될 때는 농장원들한테는 기술감독사업을 맡은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는 그의 이야기에 전남호동무의 가슴도 젖어 들었다.

《동무의 마음을 알겠소. 나도 힘껏 돕지.》

그해에 김영록동무는 안해와 각지에서 사는 형제들과 자식들의 도움속에 와우도구역안의 협동농장에서 새해 농사차비를 하는데 무한 트랙터부속품 전량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장에서 애를 먹고있는 중요부속품들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농업전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가는 김영록동무.

그 소꿉은 애국의 마음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향심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가는 김영록동무를 농장원들은 애국가라고 부른다.

본사기자 허 명 수

돌격전의 앞장에서 우리를 찾으라

형봉탄광 청년탄부들

《청춘을 빛나게 살자!》 형봉탄광의 청년탄부들이 이 빛나는 삶과 투쟁의 구조에 갇혔을 리상과 포부를 엮고 석탄산업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청춘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열치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형봉탄광의 청년들격대원들이 2호지수용을 가서내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

수십년동안 쌓인 감람을 처리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았다.

침침한 막장, 허리치는 물속, 여러 시간동안 일하느라 청년들격대원들의 작업복은 온통 감람범벅이 되었다.

이때였다.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수십개의 안전등의 불빛이 마추웠다.

교대를 마친 청년탄부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무리해도 몸들이 일었겠소?》

바람에 청년들격대원들이 또 한바탕 폭소를 터지었다.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는 청년탄부들의 승벽심이 한가정의 작은 경쟁도 표에도 그대로 비껴있는 것이다.

지침줄 모르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형봉탄광의 청년탄부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애국의 물음, 향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탄전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대견하고 돋보이는 것인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땀을 바치는 리원철동무와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온 차은화동무, 청년탄부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석탄산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이 부르는 돌격전의 앞장에서 우리를 찾으라.》 청년탄부들은 이렇게 총정과 애국의 애정을 심장으로 터지며 아낌없이 흘리는 성실한 방법으로 청춘시절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명천탄광 운수중대 자동차 운전사 김석철동무는 제대되어 단련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10여년동안 석탄생산에 필요한 광목운반을 맡아 운행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그는 언제나 소공구들과 예비부속품들을 그 흔하게 갖추어놓고 자검자수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

서 보장하고 있다.

나을 가려보기 힘든 눈비 내리는 날에도, 찬바람부는 날에도 그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광목보장을 위해 운행길에 하루도 드림이 없이 달려가고 있다.

탄부들과 일군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자동차운전사라고 부르고 있다.

로동통신원 최 성 순

우리 자동차운전사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보람찬 일터에 넘치는 청춘의 희열과 광만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본사기자 조 경 철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세계정치의 원로, 사회주의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주체 81(1992)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고전적로카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로카에서 지금 사회주의위업을 시련을 겪고있는 인간 사회주의는 의연히 혁명적당들의 투쟁목표로, 진보적인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집권당건설의 역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었다.

로카가 발표되자마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투쟁방향을 찾아 사ought있던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령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당건설의 출발은 지침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당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올곧게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다른 근로인민대중이 피흘리며 투쟁하여 온 진로정은 승리의 열쇠로, 실패의 원인으로 당건설문제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당을 와해변질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판관적문제에 나선다.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 어용나팔수들이 사람들의 넋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형편에서 혁명적당들을 일으켜세우는것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헤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전폭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바른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적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오랜 령도경험과 묘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자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체화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으며 가장 전투력있고 활력있는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시대의 거장

1980년대 중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비공식방문하시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라의 당 지도자는 몇몇 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만나 친견자담과 품모양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시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김정일동지는 대의활동을 전면에 나서지 않아 하시지 않지만 외교에서 아주 원숙하고 세련된 정치가이며 인간적으로 특이한 매력 을 가지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거장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수억 만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김정일동지는 대의활동을 전면에 나서지 않아 하시지 않지만 외교에서 아주 원숙하고 세련된 정치가이며 인간적으로 특이한 매력 을 가지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거장입니다.》

이것이 수령을 받드는 마음 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역사에는 앵겔스나 스탈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것이 못하였다. 위인만이 인민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근보적인류가 21세기를 이끄실 령도자로 높이 모신 김정일동지, 사상과 령도, 덕망의 특출한 위대성으로 만민을 매혹시키시는 그분은 혁명적인 인민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승리의 위대한 고전적 영원한 상징이다.》

이것은 세계의 위인에 대한 그의 순결한 사상감정의 불출신 동시에 시대의 제왕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고 회고의 높이에서 형상 건립되었다.》고 하면서 말기인인 누구인가고 물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친히 말하시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고인들이 되자고 하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은 총비서는 《고인들, 평범하고 겸손한 말이지만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즈음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강연회, 독보회, 토론회 등의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기내에술대하에서는 강연회 기내에술대하 미술학부 학부장은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길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사하고 같이 언급하였다.

《올해 6월 19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령도자의 당령도자는 뛰어난 정치실력으로 조선민족과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자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세계정치를 특기한 자주주의의 거장이시 다. 그의 정치철학은 자주주의의 지도사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적 건설에 철저히 구현 하시었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을 때 조선이 이끄러오지 않았던 것은 그의 투철한 자주로 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자주정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것은 선군정치이다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간섭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셨다.》

그이에 의하여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 되었으며 선군정치의 의해 조선의 국력이 비쌍히 강화되고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되게 되었다.

조선이 미국의 횡포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기까지 절제충은 늘라는 현실앞에 국제사회의 찬란의 목소리를 금치 못했다.》

글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조선의 대외활동의 근본리념으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자주화면 세 세계를 건설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들리시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감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기로 조선로동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고 격찬하시었다.

진보적역사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혁명적당건설업적은 자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본사기자

만민의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분출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의 대련과 심양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즈음하여 1일부터 5일까지 중국로녕성 대련시에서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었다.

《1964-2014. 6. 19 50돐》, 《중국대련 김정일화전시회》라는 제목으로 대련시에서 전시회장막이 열렸다.

전시회장막에는 조종 두 나라 기발을 배경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승군정부를 견정하시어 사신 문원이 모셔져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적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 장영애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당의

영국정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 진행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6월 19일 김정일동지의 승고한 뜻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안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영국정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 진행

정식화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었다. 또한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전투적함무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정세하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영국친공산당 대표는 《6. 15



미국의 도청행위를 규탄하는 유림의회 성원들

최근시기 국제무대에서 상해협조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있다.

상해협조기구는 성원국들사이의 호상신뢰와 친선, 선의를 돈독히하고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추동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지역적 협조기구이다.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기구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왔다.

원래 이 기구는 성원국들인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이 국경문제해결을 위하여 호상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형성된 지역안보연단이었다.

1990년대에 이 5개 나라 국가수반들은 중국 상해에 모여 《국경지역에서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접촉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사이의 국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그후 2001년 6월 중국의 상해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하여 6개 나라 국가수반들이 비공식상봉을 가지고 《상해협조기구 창설선언》(테로와 분별주의, 국단주의를 배격할데 관한 상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구는 출현후 성원국들사이의 지역적협조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상해협조기구는 성원국들사이의 호상신뢰와 친선, 협조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국제관계발전에도 긍정적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적협조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해나가고있다.

이정민 중국국가주석 습근평

살인마들은 피고석에 나서야 한다

일마전 튀르키예에 판소가 이젠 이스라엘 군교위장교들에 대한 체포명장을 발급하였다. 2010년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향하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파견된 튀르키예의 민간인들은 이 교명장에 응했다.

스처보발수 없었던 튀르키예의 조지를 두고 이스라엘고위인물들이 쌍방사이의 관계개선에 그들을 편진다느니, 정치적 색채가 짙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는것이다.

문제의 사건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때 6월초 무어선 선단에는 이스라엘의 불확정적으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 주민들에게 보내는 인도주의원조물자들이 실려있었다. 이 선단은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대상으로 될 하등의 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을 공해상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수십명의

상해협조기구 위대한 노력

한단느니 뭐니 하며 너스레를 떨고있던 그것은 세계민심의 눈총을 피하려는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 극악한 살인마들에 대한 체포명장 발급을 두고 이스라엘이 황당난 꾀변을 늘어놓는것을 보아도 그렇다. 이스라엘이 한쪽박의 팽성이라도 있었다면 마지못해 제가 잘한것처럼 그렇게 토라져서 마구 입을 놀리지 않았을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를 봉쇄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인도주의위기가 초래되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들의 죄과는 뒤에서 미루어놓고 도리어 제편에서 후들대고있다.

진실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피비린 행정에 대해 절대로 정당한 할수 없다. 인간살육범죄, 인권유린범죄는 국제법상 용서받을수 없으며 거기에는 효도가 없다. 이스라엘은 피고석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배금희

국제추구권맹 2014년 월드컴퍼 경기대회 개막

국제추구권맹 2014년 월드컴퍼 경기대회가 12일 브라질의 한 마을로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요르디만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반항공헌 련 진행

이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또 한차례의 반항공헌이 진행되었다.

《메스바흐 호환다》로 명명된 대규모반항공헌의 한 고리로 진행된 일련 흥련과정에 작자한

2014년 월드컴퍼 경기대회 개막

에서 있었다. 《저연》, 《인류》, 《추구》를 주제로 한 개막공연에 이주최국인 브라질과 호르바즈가원인 경기기 진행되었다.

경기대회는 7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 32개 참가국이 도합 64차례의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

지진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8일 리히터척도로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이와매천 알바다 물 밑 70km 되는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정책에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들